

“대리비·택시비 비싸 멀리 안가” 동네 상권 뜯는다

광주 대리비 전년비 만원 올라 2만~4만원대... ‘원정’ 부담 상무·수완지구 등 유명 상권 대체로 한산... 임대지수 하락 “한 푼이라도 아끼자” 아파트 상가 호프집·치킨집 등 북적

“대리운전 비용이 올라 부담이 커졌어요. 술자리가 있어도 집 근처에서 약속을 잡게 됩니다.” 일주일 평균 저녁 술자리가 4일은 된다는 직장인 오세현(32·광주 서구 화정동)씨는 최근 약속 장소를 집 주변으로 잡는 경우가 늘었다. 지인들과 만남은 물론, 업무 관련 술자리가 잦은 편이라는 그는 ‘원정’ 술자리가 부담된다고 했다. 대리비와 택시비 등 교통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오씨는 “상무지구나 수완지구 등 광주 주요 변화가에서 주로 술을 마시고 대리를 이용했었는데, 대리비용이 2만원을 웃돈다”며 “택시비도 올라 지출이 부담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주점과 유흥가가 밀집한 광주지역 주요 상권보다 집 주변 동네 상권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치솟는 물가에 부담이 커지자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동네 가게를 찾는 사람들이 증가했는데, 당장 교통비 인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4일 교통업계에 따르면 광주지역 택시비는 지난 7월 중형택시 기본요금에 3300원에서 4300원으로 인상됐다. 모범택시와 대형승용택시 기본요금은 3900원에서 5100원으로 올랐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오른 대리비용의 영향도 크다.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밤 10시 주점 등 영업이 일제히 종료되면서 해당 시간 대리운전 수요가 몰렸다. 그러면서 덩달아 요금이 올랐는데, 코로나가 잠잠해진 최근에도 가격은 내려가지 않고 있어서다. 기존 1만~1만5000원 수준이던 대리비용은 최근 2만~2만5000원 수준으로 ‘롤’ 당 많게는 1만원 상당 올랐다는 게 이용자들의 얘기다. 실제 지난 13일 저녁 7시계 방문한 광주 서부구 우산동 인근 아파트 단지 내 상가 호프집과 치킨집 등은 몰려든 손님들로 북적였다. 이곳에서 만난 직장인 강모(36)씨는 “요즘 멀리

가지 않고 집 근처에서 1차, 2차 술자리를 모두 해결한다”며 “당장 소주도 한 병에 1000원은 더 싸고, 안주 가격도 변화 상권에 비해 저렴하다”고 했다. 반면 비슷한 시간 광주 대표 주점이라고 불리는 광주시 동구 구시청과 서구 상무지구 일대는 그 명성에 비해 비교적 한산했다. 상무지구에서 20년 넘게 장사를 해온 김모(56)씨는 “상무지구는 20대 초중반의 젊은 층이 주요 고객층이었는데, 고물가에 고정소득이 없는 20대의 소비를 줄이면서 썰렁해진 듯하다”며 “자차가 없는 20대들은 택시비 인상도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구시청과 상무지구, 수완지구 등 광주지역 대표 상권의 불황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이날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뷰어에 따르면 금

남포·충장로의 집합 상가 임대가격 지수(2021년 4분기=100)는 98.45이었다. 상무지구는 97.78, 수완지구는 99.01로 세 곳 모두 광주지역 평균인 99.10을 밑돌았다. 특히 상무지구처럼 주점가와 유흥가가 밀집한 상권은 코로나 이후 유흥관련 물가가 크게 오른 데다, 유흥 문화도 시들해지면서 손님들의 발길도 줄었다는 게 업주들의 평가다. 상무지구 상인연합회 한 관계자는 “광주는 타지역과 다르게 구시청, 상무지구, 수완지구, 금호지구, 풍암지구, 용봉지구, 두암지구 등 주택단지를 끼고 먹자골목 등 상권이 활성화돼 있다”며 “교통비 부담 증가로 동네 상권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 상무지구 일대 상가 매출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다. 업종과 운영방식에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고병일 광주은행장 전남사랑의열매 ‘나눔리더’

고병일(사진) 광주은행장이 '220인의 나눔리더 릴레이 캠페인'의 200번째 나눔리더로 가입했다. '나눔리더 릴레이 캠페인'은 지역사회 개인 모금 활성화를 위해 전남 사랑의열매가 지난 5월부터 진행 중인 프로그램으로, 개인이 1년 내 100만원 이상을 기부하면 가입자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200호 나눔리더로 가입하게 된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선한 영향력들이 모여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늘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커피 찌꺼기로 숲을 살려요”

광주신세계-서구청 ‘알쓸커피’ 캠페인... 유아숲체험원에 비료·식물 재배키트 제공

광주신세계(대표 이동훈)는 14일 광주 서구청과 함께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한 ‘알쓸커피’ 캠페인을 펼쳤다. 광주신세계는 광주시 서구 팔학산 유아숲체험원 일대에서 커피 비료를 뿌리고 식물재배키트를 전달하며 자원순환 활동을 펼쳤다. ‘알쓸커피’는 알수록 슬만한 커피박 모으기의 줄임말로 광주신세계와 서구청이 커피박을 모아 친환경 비료와 식물 재배키트로 재가공하는 캠페인이다. 캠페인에 앞서 광주신세계는 서구청 청소행정과와 함께 커피공에서 커피액을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인 커피박을 수거해 친환경 비료를 만들고 이를 활용한 식물재배키트를 제작했다. 기증된 커피비료는 10kg짜리 100포대로, 1000명의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물재배키트 90세트는 산림문화연구소에 기부해 유아숲체험원 ‘생태 체험 프로그램’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광주신세계는 또 숲체험 지원 패키지(어린이 모종상, 철양동이 등)도 제공해 아이들이 직접 식물재배를 해볼 수 있도록 했다.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는 “이번 캠페인은 친환경



14일 광주시 서구 팔학산 유아숲체험원 일원에서 광주신세계와 광주 서구청 관계자들이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한 ‘알쓸커피’ 캠페인을 펼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경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폐기되는 커피박 처리비용을 줄이는 경제적 가치를 만드는 유의미한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환경보호 실천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

“자동차세 기준 ‘배기량→차량가액 등’ 대체하라”

대통령실 “배기량 상한, 폐지·완화 방안 마련 권고”

대통령실은 자동차세 부과시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차량가액 등으로 대체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난 13일 권고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을 주제로 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 결과 총 투표수 1693표 중 1454표(86%)가 개선에 찬성했다. 시대·환경 변화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평한 세금 부과 필요성 등을 감안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4%로 가장 많았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안으로는 ‘차량가액 기준’이 가장 많이 제시됐다. 이외에도 운행거리·온실가스 배출량·중량

등 기준들이 나왔다.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12%, 기타 의견은 14%를 각각 차지했다. 대통령실은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에 “배기량 기준은 자동차에 대한 공과세 실현,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차량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추가·보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초생활 보장, 장애인 복지, 한부모 가족 지원제도상 수급자격 산정시 적용되는 배기량 상한을 각 제도의 취지·목적, 시대·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도 했다. /연합뉴스

예·적금 광고, 최고·기본금리 균형있게 표시해야

금융위·금감원 발표

금융사가 예·적금을 광고할 때 최고금리와 함께 기본금리도 잘 보이도록 표시해야 한다는 금융당국 안내사항이 나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예금성 상품 금리 관련 광고 시 필요사항’을 14일 발표했다. 당국이 제시한 예시를 보면 최고금리와 기본금리를 함께 표기하도록 했다. 특히 기본금리도 광

고 위치와 글씨 크기·굵기·색상을 최고금리와 균형 있게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명확히 하도록 안내했다. 금융사들은 예·적금 상품 광고·설명서에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 등으로만 표기해 문제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우대금리 지급 조건에 대해 항목별로 구체적인 요건을 기재해 소비자가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사전에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라고 안내했다. 또한 추정 등 형태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당점 확률 등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와 납입금액·계약기간·적용금리 등 구조에 따른 수취이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업계와 회의를 거쳐 이런 안내사항을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때 반영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72.89(+38.19)
↑ 코스닥	899.47(+16.75)
↓ 금리(국고채 3년)	3.836(-0.017)
↓ 환율(USD)	1325.70(-4.30)



임곡농협 주유소 개점 14일 고성신 농협 광주본부장 등 농협 관계자들이 임곡농협 주유소 신축·이전 개점식에서 테이프 커팅식을 갖고 있다. 신축 임곡농협 주유소는 487평 부지, 유류 15만ℓ 저장 규모를 갖췄으며, 최신형 셀프 주유기 2대, 경유와 실내 홀로리 급유기 각 1대, 전기차 충전기 4대 등의 설비가 마련됐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임금체불 특별 점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14일 추석을 앞두고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과 근로자 노임 지급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남본부는 오는 22일까지 131개 건설 현장의 하도급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 특별반을 편성한다. ▲하도급 적정 계약 여부 ▲하도급 대금 지급의 적정성 ▲노임·장비대 등의 적시 지급 현황 등의 사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추석 명절 전까지 하도급 대금과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전남본부는 연말까지 건설현장 불공정 행위 여부와 하도급 관련 적정성을 지속 점검해 현장 참여 시공사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조영호 본부장은 “하도급 대금 지연이나 체불은 영세업체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한인 만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 특별반이 건설현장을 방문해 근로자들의 근로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제공) 금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으로 건설현장 관계자 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